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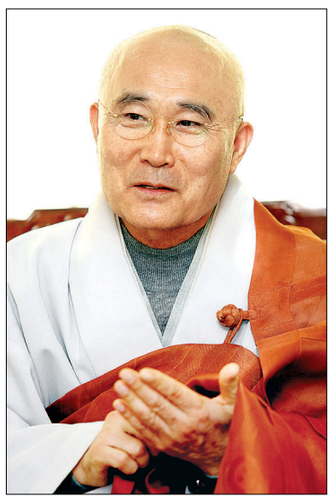
2015.5.18~2015.5.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6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7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툽텐최된	불광출판사
8	혜총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혜총	(주)조계종출판사
9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10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Q : 우리에게 내재된 빛 꺼내는 법은? A : 지장기도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

글 지원스님, 그림 양선희 | 민족사 펴냄 | 1만원



포교의 달인인 前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이 지장기도에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리는 지장기도〉이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경전을 베껴 쓰고(寫經) 그림을 따라 그리며(寫佛)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획 했다.

이 책은 지원 스님의 글과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인 양선희 작가의 그림이 조화를 이뤄 읽기 편하게 구성됐다.

삶의 지혜와 행복을 열어주는 잔잔한 일상의 이야기로 시작,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고, 지장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본문 중간 중간 손으로 쓰기(寫經), 마음으로 그리기(寫佛) 등이 등장, 스토리를 따라 사경하고 사불할 수 있도록 이끈다.

특히 지원 스님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언어로 서술된 '날마다 행복을 만드는 비법' '지장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법',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법' 등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전통불화의 맥을 이으며, 21세기 불교회화의 새 지평을 여는 양선희 작가의 불화를 따라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된다. 지원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헬조선을 떠나자'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려 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일종의 직무유기를 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지원 스님은 '지옥 중생을 다 구원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력을 지니신 지장보살님께 채널을 맞춰 기도하면 고통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안온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스토리 따라 사경, 사불 기도
"좋은 말하고 잘 경청 하라"
지장기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 제시

스님은 이번 책 속에는 지장신앙 도량인 양주 육지장사를 창건한 취지가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수십 년 전 사경을 헤맬 정도로 깊은 병고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지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몸 바꿔서 다음 생에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불법을 닦고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대로 기도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지장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일심으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완쾌되었습니다. 그 후 천 일 지장기도를 하고, 육지장사를 창건하게 된 것입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병고(病苦)를 겪을 때 지장기도를 통해 완쾌됐고, 천일지장기도 후 육지장사를 창건했다는 스님의 진솔한 기도 체험담 또한 이 책과 지장기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마음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빛이 본래 내재돼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빛을 꺼내 쓰는 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릴 때 무한한 빛이 솟아납니다. 경전을 베껴 쓰고 불보살을 그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밝고 건강하다는 것을 속삭이면서 기도하라고 스님은 당부한다. 그렇게 한마음으로 온 정성 다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그리면서 기도를 하면 무한한 빛이 솟아난다고 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통해 마음과 운명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지원 스님의 기도법과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드는 비법은 특별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들이다. 스님은 상대방의 모자란 것을 탓하지 말고 그의 모자람을 기꺼이 채워주라고 말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에 도움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은혜를 갚을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성공에 부쩍 다가설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행복 비법이라며 미소 짓는다.

또한 지원 스님은 아름답고 기쁜 순간만을 기억하고 밝은 마음으로 환히 웃으면서 지장기도를 하면 그 가피가 무한대로 확대 재생산된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강조한다. 아울러 '말에도 씨가 있다' '좋은 말을 반복하면 행복의 씨앗이 싹튼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잘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행복의 비법임을 밝힌다. 한편 '나'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마음의 방해물임을 일깨워주면서 기도야말로 집착의 고삐를 놓는 방법임과 동시에 나와 가족, 이웃, 친지, 나라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한다.

휴식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기도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책에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지장기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고, 지장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장기도로 운명을 바꾸는 법, 지장기도의 공덕, 지장기도 영험담, 갖가지 지장기도는 물론이고, 사경과 사불의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한다. 지원 스님은 "지장보살의 중심사상은 효(孝)입니다. 지장보살의 전신인 소녀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땅속에 몸을 가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스님은 우리 모두 지장보살의 화신임을 강조하면서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알려 주는데, 효를 첫손에 꼽는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 해마다 노인자살률이 심각할 정도로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서 스님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교에서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사람 모두가 전전생의 부모였거나 미래의 부모요, 한 몸, 한 뿌리임을 강조한다.

'바로 지금 이 자리서 지장보살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준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비의 꽃을 활짝 피우고, 사랑의 꽃으로 만물을 품으며, 정성의 꽃으로 이 세상을 장엄하라'는 것을 실천할 때 참고 견뎌야 하는 사바세계인 이 땅이 지옥서 극락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이 책서 이끌어주는 대로 읽고 쓰고 그리면서 지장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장보살의 가피로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이 가지는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지원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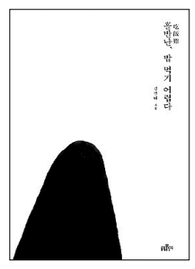
설악산 백담사서 출가했으며, 197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으며, 제 9대 · 14대 · 16대 대한불교조계종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1983년 서울 은평구에 삼보사를 창건해 도심포교의 모범을 이뤘으며, 2006년 경기도 양주에 육지장사를 창건해 수행 기도도량으로 일구었다. 이후 조계종 포교원장, 호계원장을 지냈고, 동국대서 석사 ·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 저서로 시집 〈장명등〉,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 〈지원 스님의 100세 건강법〉 등 다수가 있다.

김진태 前 검찰총장이 천천히 공들여 읽고 음미한 옛 시문(詩文)의 향연들

흘반난, 밥먹기 어렵다

김진태 지음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이 책은 원래 검찰을 떠나면서 짐을 챙기던 중 혹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책상 위에서 나뒹굴던 시문을 한데 모아 퇴임식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인쇄를 하게 되었고, 그 기회에 몇 사람을 추가하고 내용을 다듬었다."

저자인 김진태 검찰 총장은 지난해 12월 총장직에서 퇴임했다. 법(法)과 시(詩) 사이는 멀어 보인다. 그러나 법조인으로 자칫 메마르고 관성적으로 흐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그는 시로써 다스리고 사색의 깊이를 더했다. 저자는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뒤 가진 첫 간부회의서 소동파의 시가 적힌 종이를 나눠줬는데, '자리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건 최선을 다하면 그 자리가 빛나는 것'이라는 뜻을 시로 전달해 화제가 됐다.

인생의 굽이마다 찾아온 옛 글 126편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시와 문장 126편과 여기에 저자의 짤막한 소회를 덧붙여 구성된다. 최치원, 두보, 이백, 원효, 소동파, 이황, 조식, 측천무후, 임제 등. 역사의 굽이굽이에 살다간 사람들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선택하고 포기하며 쏟아낸 시문들이다.

여기에 지은이의 삶과 역사적 행보, 정치적 풍경 그리고 저자의 감상을 녹여냈다. 인물의 업적이나 과오를 따지기보다 당시 현실에 이입(移入)하여 최대한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이해하려 한 것이다.

"어떤 존재라도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당시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하려 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자연을 노래하고, 세상을 논하고, 사랑에 설레고 애달파 하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선인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정회를 새삼 깨닫게 한다.

세상사 밥 먹는 게 제일 어렵다

책 제목인 '흘반난(吃飯難)'은 밥 먹기 어렵다는 뜻이다. '밥'은 생존과 직결된다. 인생은 알고 보면 밥 먹고 사는 여정에 다름 아니다. 세상에 밥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투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울고 웃는다. 법조인인 저자는 세상의 축소판인 법정서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을 것 같다.

이 책에 실린 시와 글은 대부분 궁극적으로 밥 먹는 것과 관련돼 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권력에 밀려나 유배를 떠나고, 아침엔 친구인 이가 저녁에는 원수가 되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해 세상을 버리고, 알아주는 이가 없어 방랑하는, 인간사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읊은 시는 이들이 결코 암울함이나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산과 꽃, 강물과 바람, 새와 달 등 머문 곳에서 만나는 자연에 마음을 빗대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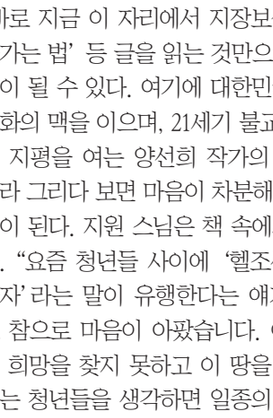
두통약 대신 시 읽기를 권유하다

옛글을 읽는 재미란 무엇인가. 선인들이 글짓기를 통해 '밥 먹고 살기' 힘든 삶을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의미를 헤아렸다면, 시를 읽는 우리는 그 마음에 이입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 시 읽는 재미가 있고 저자는 설명한다.

고려 때 선비 임춘은 가난과 실의 속에 시를 쓰며 위로 받았는데, "나는 곤궁하면서도 시 또한 잘 짓지 못한다"며 애석해하기도 했다. 시 한 편의 힘은 이렇듯 크다. 천 년 혹은 수백 년 전 선인들이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낸 시 한 편, 글 한 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밥 먹기 힘든 세상 덜 외롭게, 좀 더 힘을 내서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 지 운 명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 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천 운 사 무령 합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35
전화 043)881-1358,881-1359 / H·P 010-4496-6060
입금계좌 : 농협 351-0862-7188-33 (예금주 : 천운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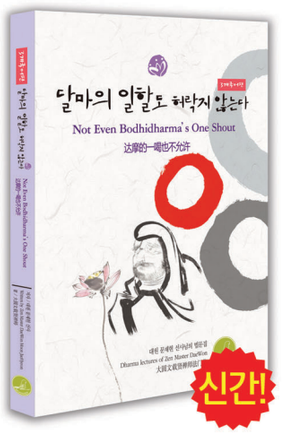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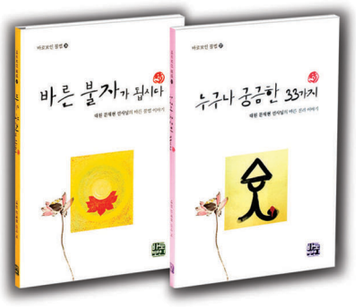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3개국어판
이 책을 잡는 순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 선기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짧고 명쾌한 법문집이 영어, 중국어를 더하여서 3개국어로 편찬되었다.

실증설(實證說)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위해, 홀연히 써내려간 대원 선사님의 실증설, 체험한 자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와 실증의 법문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